

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 E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p>갑: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서 볼 때 한 개체가 어떤 종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그 존재를 차별하는 것은 일종의 편견이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p> <p>을: 모든 생명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자기 고유의 선을 갖는다. 모든 생명은 자기 보존과 행복을 위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동등하다.</p> <p>병: 윤리의 확장은 생태학적 진화의 과정이며 생태계 모든 구성원들의 공생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의 윤리인 대지의 윤리에 이르게 된다.</p>
(나)	

- ① A: 인간의 이익을 넘어선 탈인간 중심주의가 요구되는가?
- ② B: 개별 존재의 이익관심은 왜고 감수 능력을 전제로 하는가?
- ③ C: 개별 생명은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므로 내재적 가치를 갖는가?
- ④ D: 생명 존중은 그 자체로 정당한 궁극적인 도덕적 태도인가?
- ⑤ E: 인간은 생태 공동체 보호의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를 지니는가?

7. (가)의 입장에서 (나)의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기업은 다변화된 이해 관계자들 전체의 총익을 추구하여 '사랑받는 기업'이 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여기서 기업의 이해 관계자에는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협력 회사, 고객, 지역 사회, 정부, 환경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주주의 이익이나 직접적 관계자의 이익만을 중시하던 것에서 벗어나,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공생을 도모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p>
(나)	

- ① 사회 공헌 활동이 이윤 추구에 부정적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 ② 기업의 이익 창출은 주주의 이익과 무관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 ③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특정 관계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 ④ 사회적 역할의 이행이 아닌 경영의 효율성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 ⑤ 공익 추구를 통해 사회의 신뢰를 받아 기업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8. 갑, 을 사상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p>갑: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이다.</p> <p>을: 각 개인은 자기 소유물을 합법적 수단으로 취득할 경우 그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정당한 획득과 정당한 이전(移轉), 그리고 부정의의 교정 원칙에 따른 부와 소득의 분배만이 정당성을 갖는다.</p>

< 보기 >

<p>ㄱ. 최소 국가만이 개인의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가?</p> <p>ㄴ.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위한 기본적 자유 제한은 부당인가?</p> <p>ㄷ. 천부적 자질은 개인의 소유이면서 공동 자산이어야 하는가?</p> <p>ㄹ. 정의 실현을 위한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는 정당성을 갖는가?</p>
<p>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p> <p>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p>

9. 그림의 가상 편지에 제시된 사상적 관점에서 지지할 주장으로 옳은 것은?

<p>친애하는 OO에게</p> <p>과학이 발달할수록 오직 객관적 지식만이 진리의 진정한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네. 이들은 현재의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은 과학을 발전시켜 해결해야지, 이를 종교적인 것으로 간주해 버린다면 영원히 이해를 포기하게 된다고 주장한다네. 하지만 이는 두 영역이 NOMA*로서 존재함을 모르는 것이라네. 과학이 경험적 우주의 영역을 포괄한다면 종교는 초자연적 실재와 관련된 도덕적 물음으로 가득 차 있다네. 이러한 깨달음은 윤리적 지평과 지적인 지평 모두에 근원적 지위를 주는 동시에 둘 모두를 명확히 나누어 준다네. 이와 같은 상호 겸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꼭 필요한 것이라네. ... (후략)...</p> <p><small>*NOMA(non-overlapping magisteria): 겹치지 않는 앞의 영역</small></p>
--

- ① 과학을 통해 종교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
- ② 종교가 모든 영역에서 진리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 ③ 과학적 진리는 종교적 진리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
- ④ 종교적 진리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 ⑤ 과학과 종교는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10. (가), (나)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가)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룸으로써 현실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를 제공하며,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를 체계화해야 한다.</p> <p>(나) 윤리학은 실제의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윤리 이론을 적용하여 사람의 성품, 행위 등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p>

- ① (가)는 도덕 언어의 의미와 분석을 핵심 탐구 과제로 삼는다.
- ② (나)는 각 사회의 도덕적 관습의 객관적 기술을 주목적으로 삼는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보편적 도덕 법칙의 이론적 정립을 추구한다.
- ⑤ (가), (나)는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도덕적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11. (가)의 사상적 관점에서 (나)의 ㉠에 들어갈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또는 사촌이고, 이 도시나 저 도시의 시민이다. 나는 이 친족, 저 부족, 이 나라에 속한다. 이처럼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부족, 내 나라의 과거에서 다양한 빛과 유산을 물려받는다. 또한 조상들의 기대와 후손으로서의 의무도 물려받는다.
(나)	갑: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대 정책은 그동안 차별을 받아 온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므로 정당합니다. 을: 아닙니다. 과거의 차별에 대해 잘못이 없는 현재의 사람들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갑: 한 사회에서 일어난 과거의 차별에 대해 현재의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

< 보 기 >

- ㄱ. 개인은 공동체의 역사를 공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 ㄴ. 개인은 관계적 존재가 아닌 독립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 ㄷ. 사회가 개인의 삶에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 ㄹ. 개인은 공동체의 삶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다음 대화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수정 이후부터 전배아* 단계까지의 복제는 허용해야 합니다. 전배아는 아직 착상되기 전 단계로 착상 이후에야 인간은 개체로서의 형성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을:	아닙니다. 어느 시점부터 한 인간 개체로 존재했는지 묻는다면 누구도 분명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디까지 복제를 허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합니다. 미끄러운 경사길에서 자동차를 옮기기 위해 받쳐놓은 돌을 빼는 순간 예상치 못한 지점까지 차가 미끄러지듯, 전배아 단계까지 복제를 허용하면 결국 태아 복제와 개체 복제로까지 이어집니다.
갑:	그렇지 않습니다. 전배아 단계까지의 복제는 허용하되 그 이상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그러한 우려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을:	결국 당신의 주장은 ㉠

*전배아: 수정된 이후 여자에게 착상되기 이전의 배아

- ① 인간의 발달은 연속된 하나의 과정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② 전배아 단계는 인간 개체의 형성 이전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 ③ 인간 개체의 형성 시점의 파악이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④ 전배아 복제가 개체 복제로 연결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⑤ 착상이 아닌 수정만이 인간 개체의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수 있는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랑이란 누군가를 배려하고 알고자 하며, 그에게 몰입하고 그를 보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내포합니다. 또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생시키며 그의 생동감을 증대시켜 서로의 성장을 낳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소유하려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구속하고 지배함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소유하려는 그릇된 기대가 결국 사랑을 멈추게 만듭니다.



< 보 기 >

- ㄱ. 사랑은 서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 ㄴ. 사랑은 서로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 ㄷ. 사랑은 상대의 모든 것을 소유할 때 실현되는 것이다.
- ㄹ. 사랑은 상대를 알아가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4. 갑, 을 사상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형벌의 목적은 범죄와 형벌 간 비례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 인상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 가장 적은 고통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확실하고 예외 없는 처벌이 잔인한 처벌보다 더욱 효과적이므로 사형을 부과한다는 것은 정당성의 정도를 초월하는 것이다.

을: 모든 처벌은 고통을 수반하는 악이므로 더 큰 악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 한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중략)... 범죄자에게 가해진 형벌은 모든 사람의 안전의 원천이어야 한다. 형벌은 사회적 공리를 위해 부과되는 계산된 조치인 것이다.

- ① 개인은 국가에 생명 박탈의 권리를 양도하는가?
- ② 사형은 살인범을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는 것인가?
- ③ 형벌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하는가?
- ④ 사형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치되어야 하는가?
- ⑤ 형벌은 보복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가?

15. 갑, 을의 입장에서 볼 때, 질문에 모두 바르게 대답한 것은?

갑: 태아는 임신부의 신체 중 일부이므로 낙태의 허용 여부는 임신부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야 한다. 또한 태아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인격체와 같은 생명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을: 태아는 수정과 동시에 생명을 갖는 인간으로 여겨야 한다.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과 동일한 지위를 지닌 존재이므로 낙태를 전적으로 임신부의 결정에 맡기면 안 된다.

	질문	대답	
		갑	을
①	태아는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갖는가?	예	예
②	임신부는 태아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지니는가?	아니요	예
③	태아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과 같이 존엄한 것인가?	예	아니요
④	낙태는 죄 없는 인간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가?	아니요	아니요
⑤	임신부는 낙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지니는가?	예	아니요

